

## 한국 영어교육의 역사적 고찰: 신문기사와 학술자료를 기반으로

신동일\*, 심우진†  
중앙대학교

**Shin, Dongil & Shim, Woo jin. (2011). Historical review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Korea: Using both newspaper articles and academic works. *Modern English Education*, 12(3), 252-28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historical change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Korea by using both Chosun ilbo newspaper articles and academic literature review. 1,537 articles between 1980 and 2011, selected from the Chosun archive, were classified into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admission (testing), non-public education, adult English learning, and English village program. Then they were arranged in chronological order, from the Chun Doo-hwan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the English education-related newspaper articles has increased over the last 30 years. More agenda has been dramatically appearing since 1993, especially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topics were abou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and the next one was about admission (testing).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informative for the future historical research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Korea.

[English language education/ historical review/ newspaper analysis/영어교육/  
역사적 고찰/신문분석]

### I. 서론

이복희, 여도수(2001)는 외국과의 교섭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문학(同文學)이 설립된 1883년을 한국 영어교육의 시작점으로 본다. 구한말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면서 서구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국가의 근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어 사용의 금지령이 내려질 때,

---

\* 제1저자

† 제2저자

한국어와 영어는 교육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마저도 금지되었다(박종성, 2007). 해방 후 미군정시기가 시작되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의 수요가 늘고 국가적으로도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했다. 영어교육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졌지만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영어교육의 근대화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1953년 휴전과 더불어 영어교육에 대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한동안 교실과 교사 중심의 영어교육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한상호, 1999).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영어교육은 문법·번역식 중심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능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고, 모든 외국어 과목이 처음으로 형식과 내용에 있어 동일한 체제로 통일되었다(박거용, 양기숙, 2006).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국제화 또는 세계화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영어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영어교육 산업은 급성장했다.

이처럼 영어교육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학술적 자료로 꾸준히 축적되었지만(김오성, 1992; 문용, 1982; 배두본, 1998), 구한말부터 해방까지 초기 영어교육사가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는 것에 비해서 의사소통 교육이 시작된 시점인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 자료는 많지 않다. 영어교육 관련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는 사회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주로 영어 교육매체 (어학실습실, 교과서, 멀티미디어),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법, 어휘, 발음), 시험, 교과과정, 교재의 개발과 같은 범위로 제한되었다(김진완,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0년 이후부터 소위 '영어열풍'이라 불리는 2011년 현재까지 초·중등학교 그리고 대학과 기업의 영어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교사와 전문가들은 어떤 교육을 실행했는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영어교육의 각 분야가 지난 31년 동안 어떤 역사적 변화가 있었는지 학술적 자료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매체 위에서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시작된 1980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일간지 매체에 등장한 현대 영어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학술 연구자료와 비교하면서 고찰해보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일상적으로 노출된 여러 매체 가운데 조선일보 기사로 등장한 영어교육에 관한 사건과 쟁점을 각 대통령의 임기 기간으로 나누어 후 유사 기사의 빈도수 측면에서 영어교육사의 변천을 추론하기로 한다. 일간지 기사를 논의의 중심 자료로 사용하면서 학술자료만으로는 탐색하지 못할 한국 영어교육의 또 다른 시대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영어교육의 역사적 고찰

영어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시대적 분류는 여러 학자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배두본(1998)은 해방 이후의 영어교육과정의 시대적 분류를 ‘생성기(1945.10-1955.7)’, ‘전개기(1955.8-1963.2)’, ‘정립기(1963.2-1973.8)’, ‘정체기(1973.9-1992.6)’, ‘개혁기(1992.6-1998)’로 구분하였다. ‘생성기’의 교육목표는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기초 실력을 양성하여, 외국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우리 문화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전개기’에는 영어과 교육과정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었고, ‘정립기’에는 생활중심, 경험 중심의 영어과 교육이 강조되며 영어교육의 이론적 정립을 시도한 시기였으며, ‘정체기’는 영어사용 능력을 길러 이해와 표현 또는 사용능력을 체득하고 영어 학습을 통하여 세계관의 확립과 자아 인식을 가능하게 했던 시기였다. ‘개혁기’는 개인적인 필요의 충족과 더불어 국제 사회적 필요와 국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박거용, 양기숙(2006)은 ‘교수요목기(1945-1954)’,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7차 교육과정기(1997-현재)’로 구분하였다. ‘교수요목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시기로 미군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했고, ‘제1차 교육과정기’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제정하였으며, ‘제2차 교육과정기’는 군부에 의한 유신정권 전반기로 교육의 이데올로기가 ‘국민교육헌장’을 필두로 노골화되었으며, ‘제3차 교육과정기’는 유신정권 후반부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전체주의적 차원에서 국민적 자질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과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제정·고시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는 모든 외국어 과목이 처음으로 형식과 내용에 있어 동일한 체제로 통일되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기’는 88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노태우 정부 시기였는데 외국어 교과목의 체제는 제4차 외국어과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시작된 ‘제6차 교육과정기’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발맞추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지방분권이 개편된 시기였고, ‘제7차 교육과정기’는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된다는 구호가 넘친 시대였으며 국제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외국어교육의 강화론이 자리 잡은 시기라고 정리하고 있다.

오관영(2000)은 영어교육이 실시되어 온 과정에 따라 그 주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였다. 제1차 교육시기(-1963)는 영어와 국어의 상이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영어의 기능적 측면보다 정의적 측면에 목표를 둔 시기였다. 제2차 교육시기(1963-1973)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의 세 형태를 갖춘

시기였고, 제3차 교육시기(1973-1981)는 문형의 표시, 성분의 구조, 문장의 종류 등 문법이 강조된 시기였고, 제4차 교육시기(1981-1987)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세분화되면서 처음으로 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제5차 교육시기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로 분류하였으며, 제6차 교육시기(1992-1999)는 의사소통이 강조되었지만 입시제도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고, 제7차 교육시기(2000-)는 영어수업을 실행할 것을 규정한 시기였다.

전홍주(2011)는 유아 영어교육의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유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00년부터 10년 동안 3대 일간지에서 게재된 유아 영어교육 관련 기사 235건을 분석하였다. 주제, 주요 주제, 언술을 중심으로 신문 담론분석을 실행한 후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의 하향화 현상이 1997년부터라고 주장했다. 1995년에 제정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1997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신문 매체를 통해 유·초등 영어교육의 담론이 당시 빠르게 유포되었다.

박거용(2009)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영어교육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2007년의 노무현 정부까지'와 '이명박 정부'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은 1982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때는 교육부가 초등학교에서 정규시간 외에 영어교육을 하도록 허용한 시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1997년 이후 시작된 영어강조 정책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는데 교육정책의 중요한 주제를 거의 포괄하고 있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2006-2010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부터 영어교육 정책을 내세웠는데 영어격차가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누구나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영어교육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병민(2008)은 이명박 정부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영어교육 담론을 분석하면서 정부의 영어교육정책의 목표와 영어몰입교육을 둘러싼 논란, 영어교사 수급, 영어교육과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영어의 초기 수용과정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박종성(2007)이 파종기, 암흑기, 시작기, 혁신기로 나누었다. 시기와 특성을 좀 더 부연하면 구한말 개화기(1883-1904)는 영어교육의 파종기, 일제 식민지 시대(1905-1945)는 영어교육의 암흑기, 해방 이후 시대(1946-1980년대)는 영어교육의 새로운 시작기, 그리고 세계화 시대(1990년대-2002년)는 영어교육의 혁신기로 구분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에 영어구사 인력과 영어사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어가 한글과 함께 공용어로 사용된 곳도 많았고, 모든 공문서 작성에 영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영어 교안이 마련되어 중등학교에 보급된 시기이다. 이복희, 여도수(2001)도 한국 영어교육의 변천을 구한말부터 분류하여 시기별 특징을 정리했다. 특히 광복 이후는 입시 교수요목 시기(1946.11-1954.3), 교육과정 기초 정립기(1954.4-1963.1), 교육과정

상세화기(1973.2-1981.11), 생활영어 중심 교육과정기 (1981.12-1987.2), 언어사용 중심 교육과정기(1987.3-1992.10), 회화위주 교육과정기 (1992.11-2000.3)로 구분했다. 김오성(1992)는 1876년부터 1945년까지의 영어교육 역사만 고찰하였으며 먼저 개화 시대부터 시작하여 ‘신교육의 태동기(1876-1894)’, ‘신교육 보급기(1894-1905)’, ‘신교육의 개편기(1905-1910)’로 나누었고, 일제 시대에는 ‘식민교육 추진기(1910-1919)’, ‘식민교육 조정기(1919-1938)’, ‘식민교육 절정기(1938-1945)’로 다시 나누어서 설명 하였다.

그 밖에도 동문학이 설립된 시기부터 1982년까지 영어교육의 역사를 110년으로 보고 크게 3가지 시대로 구분한 문용(1982)의 학술연구, 영어교육의 연구사를 10년 단위로 나눠서 정리한 김진완(2006)의 연구가 있다. 김진완은 ‘초기 단계(1965년-1974년)’, ‘실험 단계(1975년-1984년)’, ‘발전 단계 I (1985년-1994년)’, ‘발전 단계 II(1995년-2005년)’로 구분하여 영어교육 연구 논문들이 사용한 연구방법, 연구 성향 및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간지 매체에 등장하는 현대 영어교육사의 변천을 기존의 학술연구 자료와 비교 검토하며 분석하는 것이다. 여러 종합 일간지 중에서 조선일보를 분석 자료로 취했고, 학술지 논문은 한국학술정보(KSI KISS) 홈페이지(<http://kiss.kstudy.com>)에서 검색하였다. 일간지 중에서 조선 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조수선(2010)의 연구에서도 보듯이 다른 일간지에 비해 영어, 영어교육, 유학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취재원이나 기고자가 다른 일간지에 비해 더욱 큰 비중으로 영어교육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KISS를 통해 학술논문을 검색한 이유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관련 자료의 양이 가장 많았고 내용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시기 순으로 나열하기가 용이했다.

분석기간은 198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로 선정하였다. 그 이전 시기의 기사검색이 가능했고,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 영어교육에 관한 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의사소통, 세계화의 구호로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의 자료에 연구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조선일보의 기사검색은 한국학술정보(KSI KISS) 홈페이지(<http://kiss.kstudy.com>)의 데이터베이스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고 수집 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영어’이며 검색 조건은 ‘1980년 1월 1일’부터 ‘현재’로 설정하였으나 마지막 검색일자인 2011년 3월 28일까지 검색된 기사만을 사용하였다. 검색 내용에서 영어교육 담론과 관련성이 없거나 광고성 기사는 제외하였고, 뉴스,

기획 기사, 사설, 특집 기사를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체 1,537건의 신문기사를 본 논문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학술정보에서 검색한 학술지 논문은 ‘영어교육’을 키워드로 검색했고, 시기 순으로 나열한 후 정리하였다. 검색 특성상 ‘영어교육’으로 검색을 하여 ‘영어’ 또는 ‘교육’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검색이 되어 영어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를 제외한 후 재분류했다. 검색 건수는 총 1,499건이었으나, 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논문 1,327편을 분류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분석 방법

조선일보 기사와 학술지 논문의 검색결과 분석은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 기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1988년 2월까지였고 나머지 모든 대통령의 임기도 2월까지이지만 마지막 2개월 동안 새롭게 실행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임기의 마지막 2개월은 제외하고 시기를 분류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학자들은 영어교육 근대사의 변천을 교육과정 및 교육시기의 단위로 주로 분류했는데 해당 기간은 사실상 전임 대통령의 임기와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재직 기간은 각각 박거용, 양기숙(2006)의 4차(1981-1987), 5차(1987-1992), 6차(1992-1997) 교육과정기, 오관영(2000)의 4차(1981-1987), 5차(1987-1992), 6차(1992-1999) 교육시기, 이복희, 여도수(2001)의 생황영어 중심 교육과정기(1981-1987), 언어사용 중심 교육과정기(1987-1992), 회화 위주 교육과정기(1992-2000), 혹은 배두본(1998)의 개혁기(1992-1998)에서 설정한 기간과 비슷하게 배치된다. 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교육정책, 교육과정, 혹은 입시의 새로운 변화가 꾸준히 실행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혹은 교육시기의 분류가 새 정부의 재임 기간과 상관성이 높았다고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분류 단위로 두고 신문기사와 학술자료의 변천사를 정리하기로 한다.

각 기간 동안 검색된 기사와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수를 정리하였다. 전체 기사가 총 1537건이지만 하나의 기사 속에서 여러 영어교육 주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주제어에 빈도수를 추가로 더해지도록 했다. 학술지 논문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각 세부 주제를 보다 큰 범주 안으로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큰 주제어가 우선 분류되었다: 미취학 영어교육, 학교 영어교육, 입시와 진학, 교사, 사교육 (학원과 과외), 일반 영어 (취업준비, 직장영어, 토익과 토플시험),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영어캠프의 기사 내용이 많아져서 별도 범주로 분류했다. 초기 영어교육 범주가 초등학생 관련 기사도 포함을 해야 하지만 미취학 아동들의 영어교육에 관한 기사가 다수 검색되어 미취학 아동과 취학 후인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따로 분리했다. 학교 영어교육과 관련된 기사들은 크게 초·중등 그리고 대학교육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입시와 진학은 학교 영어교육 안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많은 기사들이 구별되게 게재되고 있어서 별도로 구분했다. 사교육 범주에는 공교육 밖에서 제공되는 학원 및 과외 교육에 관한 기사를 모았으며 일반영어 범주는 주로 직장 안에서의 영어교육,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시험, 취업 혹은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수행되는 영어교육 기사에 관한 범주이다. 이 분류를 기준으로 학술지 논문의 분류도 같은 분류 주제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980년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총 6개의 시기별로 그리고 그 시기 내에서 주제별로 기사와 논문을 분류하고 각각의 빈도수와 해당 백분율을 계산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용어 사용이 다르기도 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시기에 검색된 기사와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 IV. 분석 및 토론

##### 1. 전두환 정부 시기(1980년-1987년)

표 1에 영어교육의 새로운 시작기라고도 불리는 시기, 즉 전두환 정부 시절의 영어교육 관련 기사와 학술지 논문의 빈도수와 분포를 정리했다. 전두환 정부의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기간이 길었지만 영어교육 기사의 전체 빈도수는 가장 적었다. 전체 74건의 빈도수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일반영어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영어회화에 대한 빈도수가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체 영어교육 기사 중에서도 17.6%를 차지했다. 이 시기는 생활영어의 구사능력 신장을 강조하였던 시기였음을 고려해 볼 때(박거용, 양기숙, 2006) 영어회화능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시대의 흐름과 일치했다. 그에 반해 영어회화와 관련된 학술지 논문은 1편이었다. 이종혁(1983)은 ‘소통활동을 위한 언어교육’ 제목의 논문에서 실질적인 생활영어 구사 능력 신장에 대한 내용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방식을 설명했다.

이 시기에는 전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듣기능력 평가가 도입된 기사가 주목할 만하다. 박종성(2007)은 1980년 중반부터는 미국과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 학자들이 귀국하면서 영어 학습 상황이 많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이 시기의 영어교육이 문자 중심에서 음성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추론하고 있다. 1983년부터 학교 성적에 영어듣기평가가 반영되면서 음성언어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생활영어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학교

영어교육과 관련한 학술논문은 4편 발견되었는데 학교에서 실시한 영어 듣기와 관련한 학술 논문은 아직 찾아볼 수 없었고 입시, 진학과 사교육에 관한 학술 논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표 1  
전두환 정부 시기의 영어교육 기사

대분류	소분류	신문기사		학술지 논문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미취학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sup>1</sup>	3	4.1%	3	4.2%
	합계	3	4.1%	3	4.2%
학교 영어교육	국민학교 영어교육	7	9.5%	2	8.3%
	중학교 영어교육	2	2.7%	1	4.2%
	고등학교 영어교육	3	4.1%	1	4.2%
	합계	12	16.2%	4	16.7%
입시, 진학	고등학교 입시	1	1.4%	-	-
	대학교 입시(일반)	12	16.2%	-	-
	학력고사	3	4.1%	-	-
	합계	16	21.6%	-	-
사교육 (학원 및 과외)	학원 및 과외	3	4.1%	-	-
	합계	3	4.1%	-	-
일반영어 (취업준비, 직장, 토익/토플)	영어회화	13	17.6%	1	4.2%
	영어말하기, 듣기	1	1.4%	-	-
	토익	2	2.7%	-	-
	직장 내 영어교육	10	13.5%	-	-
	취업영어	1	1.4%	-	-
합계	27	36.5%	1	4.2%	
기타	임용고시	1	1.4%	-	-
	기타	12	16.2%	16	66.7%
	합계	13	17.6%	16	66.7%
합계		74	100.0%	24	100.0%

<sup>1</sup>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조기영어교육’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만을 말한다. 조기영어교육이라고 그대로 언급한 이유는 신문 기사에서 검색된 제목을 바탕으로 분류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1983년 3월 20일에 게재된 영어듣기 시험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이다.

<「英語듣기」 성적반영, 전국 中-高대상 年 네 차례 放送시험실시>

올해부터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간 네 차례에 걸쳐 방송을 통한 영어듣기능력 평가시험이 실시된다. 문교부가 생활영어교육강화시책의 일환으로 19일 각시-도교육위원회에 보낸 영어듣기능력 방송평가 시행지침을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전국 동시평가 2회·시-도교위별 평가 2회 등으로 나눠 듣기평가 시험을 실시하되, 그 결과를 학교재량으로 20-50%의 범위 안에서 학과성적에 반영토록 되어있다. (「英語듣기」 성적반영, 전국 中-高대상 年 네 차례 放送시험실시, 1983. 03. 20)

국민학교<sup>2</sup> 영어교육에 관한 기사는 7건 등장했는데 학교 영어교육 범주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당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기사도 6건이나 발견되었다. 이르긴 하지만 초기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태동한 시기인 셈이다. 해당 학술 논문은 2편이 발견되었는데, 홍성면(1982)은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해서 1982년부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회화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한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관영(1982)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입시에서는 대학교 입시에 대한 내용이 12회나 등장해서 ‘입시 및 진학’ 범주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토익에 관한 기사는 1건만 검색되었는데, 토익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가 아니었지만 토익에 대한 일간지 기사가 최초로 등장했다. 이에 관련된 학술 논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학술지 논문 검색에서 기타 내용에 분류된 것은 영어학 기반의 영어교육 논문 5편, 해외 자녀의 이중 언어교육 문제 4편, 대학원 교과과정 1편, 심리언어학 1편, 영어교육 비평 1편, 대학 영어교육 3편,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가 1편씩 검색되었다.

## 2. 노태우 정부 시기(1988년-1992년)

표 2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영어교육 관련 기사의 빈도수와 분포이다. 이 시기의 학교 영어교육과 입시에 관한 기사는 전두환 정부 시기보다도 2배 정도

<sup>2</sup> 이 명칭은 1941~1996년에 사용되었다. 교육부는 1995년 8월 11일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1995년 12월 29일 교육법을 개정하여 1996년 3월 1일부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앞으로 ‘초등학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높은 빈도수로 게재되었다. 특히 대학입시 정보, 본고사, 수능 등에 관한 기사가 빈번히 게재된 이유는 당시에 대학별 본고사와 수능이 처음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해당 입시와 연관성이 있는 영어교육 연구 논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표 2

노태우 정부 시기의 영어교육 기사

대분류	소분류	신문기사		학술지 논문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미취학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2	1.9%	3	13.6%
	합계	2	1.9%	3	13.6%
학교 영어교육	국민학교 영어교육	5	4.8%	1	4.5%
	중학교 영어교육	5	4.8%	3	13.6%
	고등학교 영어교육	10	9.5%	2	9.1%
	대학교 영어교육	2	1.9%	3	13.6%
	합계	22	21.0%	9	40.9%
입시, 진학	고등학교 입시	4	3.8%	-	-
	특목고 입시	1	1.0%	-	-
	검정고시	1	1.0%	-	-
	대학교 입시(일반)	19	18.1%	-	-
	본고사/수능	13	9.5%	-	-
	학력고사	1	1.0%	-	-
	합계	39	37.1%	-	-
교사	영어교사 파견	1	1.0%	-	-
	기타	-	-	1	4.5%
	합계	1	1.0%	1	4.5%
사교육 (학원 및 과외)	학원 및 과외	6	5.7%	-	-
	합계	6	5.7%	-	-
일반영어 (취업준비, 직장, 토익/토플)	영어회화	4	3.8%	1	4.5%
	영어말하기, 듣기	1	1.0%	-	-

	영어독해	1	1.0%	-	-
	토익/토플 외	6	5.8%	-	-
	직장 내 영어교육	1	1.0%	-	-
	취업영어	4	3.8%	-	-
	합계	16	15.2%	1	4.5%
기타	자기개발	1	1.0%	-	-
	기타	17	16.2%	8	36.4%
	합계	19	18.1%	8	36.4%
	합계	105	100.0%	22	100.0%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기사가 10건이나 등장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에 고입 선발고사에서 처음으로 주관식이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교육체제를 강화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사화되었다. 학술지 논문 5편도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과 교육과정과 교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1990년 5월 22일자 조선일보에서 고등학교의 교과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같은 해에 문교부는 고등학교 과목수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축소된 과목 중에서 또 다시 과목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 과목이 축소된 결과로 주요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평가가 시행되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고등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과목이 표면적으로는 줄었지만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시간 분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교 교과목 6-7개 축소>

문교부는 현행 고교 교과목이 너무 많아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고교교과목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현재 26-27개인 이수과목(문과 26개, 이과 27개)을 95년까지 20개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아래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문교부는 특히 과목이 여러 개로 세분되어 있는 국어와 사회 및 과학 교과목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교과목 6-7개 축소, 1990. 12. 06)

전체적으로 신문기사와 학술 논문 모두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신문 매체에 등장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서 입시, 진학, 사교육에 관한 학술 연구는 미비한 편이었다. 일반영어 영역에서도 영어회화 관련 학술논문 1편이 있었고 다른 항목의 연구논문도 검색되지 않았다.

조기 영어교육과 초등 영어교육의 기사 빈도수는 이전 시기에 비해 큰 변화는 없지만 1991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 1995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의 정규교과로 채택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 일자 기준으로 4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큰 영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술 논문은 3편이 게재되었고, 조기 영어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논문 1편과, 조기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한 논문이 2편 있었다.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 능숙도 시험은 이 시기에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조선일보에서도 6건의 기사가 등장했다. 토익과 토플과 같은 영어 능숙도 평가가 어떤 경로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영어 부분에서는 영어 독해에 관한 기사 내용이 처음 등장했고, 취업을 위한 영어학습 기사도 다소 증가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어 영어회화에 대한 신문기사는 4건으로 증가했다. 기타에 포함된 학술지 논문에는 영문학 관련 연구물 5편, 외국어 교육 평가 1편, 영어교육 발전사 2편이 검색되었다.

### 3. 김영삼 정부 시기(1993년-1997년)

표 3에서 요약된 것처럼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모든 범주에서 영어교육 신문기사의 빈도수가 이전 두 시기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어교육 기사는 모두 344건이 게재되었는데 이는 전두환 정부시기에 비해서는 약 5배, 노태우 정부시기에 비해서는 약 3배 가량 높은 빈도수이다. 학술지 논문 또한 134건이 검색되어 이전 시기에 비해 약 6배나 높은 빈도수의 연구물이 축적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에 영어가 세계어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매체를 통해 알렸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박종성, 2007).

표 3

김영삼 정부 시기의 영어교육 기사

대분류	소분류	신문기사		학술지 논문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미취학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9	2.6%	10	7.5%
	영어연극	2	0.6%	-	-
	합계	11	3.2%	10	7.5%
학교 영어교육	국민학교 영어교육	23	6.7%	24	17.9%
	중학교 영어교육	15	4.4%	12	9.0%
	고등학교 영어교육	18	5.2%	12	9.0%

	대학교 영어교육	13	3.8%	4	3.0%
	합계	69	20.1%	52	38.8%
입시, 진학	특목고 입시	3	0.9%	-	-
	대학교 입시(일반)	26	7.6%	-	-
	본고사/수능	62	18.0%	1	0.7%
	편입학	2	0.6%	-	-
	합계	93	27.0%	1	0.7%
교사	원어민 교사	2	0.6%	-	-
	교사연수	2	0.6%	1	0.7%
	교사임용	1	0.3%	-	-
	합계	5	1.5%	1	0.7%
사교육 (학원 및 과외)	학원 및 과외	28	8.1%	-	-
	합계	28	8.1%	-	-
영어캠프	영어캠프	2	0.6%	-	-
	합계	2	0.6%	-	-
일반영어 (취업준비, 직장, 토익/토플)	영어회화	11	3.2%	4	3.0%
	영어 말하기, 듣기	10	2.9%	2	1.5%
	토익/토플 외	26	7.6%	-	-
	직장 내 영어교육	13	3.8%	-	-
	취업영어	18	5.2%	-	-
	합계	75	22.7%	6	4.5%
기타	영어교육강화	2	0.6%	-	-
	자기개발	1	0.3%	-	-
	기타	55	16.0%	64	47.8%
	합계	61	17.7%	64	47.8%
	합계	344	100.0%	134	100.0%

학교 영어교육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빈도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에 7건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증가한 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초등학생에게 선택적 특별활동으로 영어를 가르친 것이 1982년이다(권오량, 부경순, 신동일, 이진경, 현석분, 정양순, 2006). 그리고 13년이 지난 1995년부터 학교장의 재량으로 영어는 초등학교 교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국내에서 치르고 난 후 대외적 경제 교류의 확대가 시작될 즈음에 영어는 초등학생 때부터 알면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재근, 김용호, 2009).

총 344회의 전체 신문기사 중에서 6.3%의 비율을 차지하는 초등 영어교육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의 영어교육 관련 기사보다도 많았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영어교육도 신문기사로 보다 빈번히 등장했다. 미취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연극에 관한 신문기사가 게재되었으니 향후 조기영어교육의 열풍을 예고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술지에서도 당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연구물이 24편이나 게재되었는데 이는 전체 영어교육 연구논문의 17.9%의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기사는 다른 시기와는 달리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강의와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수준별 수업, 방과 후 수업이 기사로 등장했다. 이는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전환된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와 정보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지방으로 분권화시키고 교육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개편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박거용, 양기숙, 2006). 영어회화, 영어 말하기·듣기, 영어능력공인시험, 회사에서의 승진에 필요한 영어, 또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도 신문기사로 처음 등장했다.

초등과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는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언급이 많아졌으며, 교과서 분석 연구도 시작되었다. 중등학교에서의 효과적 의사소통 지도방안 연구(정승영, 1994), 중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분석 및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김임득, 1996), 6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연구(민찬규, 1996), 교과서 집필과 중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최용재, 1996) 등이 등장한 때이다.

입시와 진학은 영어교육 관련 신문기사 중에서 전체 27%를 차지했다. 특히 대학별 본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기사가 62건으로 매우 빈번히 신문매체에 등장했다. 그러나 관련 학술연구는 1편만 검색되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본고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신문매체는 진학과 입시에 관한 사회적 호기심을 반영했지만, 시행된 시기가 오래 되지 않아 관련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입시의 출제 경향 및 학습 요령에 관한 기사 예시이다.

<내신등급 큰 차 정규수업 충실, 단순 암기보다 기본원리 이해-응용력 중요>

“외국어 영역에서 영어의 경우 이전처럼 단순하게 문장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경향에서 탈피,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대답했다. 실생활과 접목된 영어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인데, 예를 들면 상품목록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라는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성미, 1993, 2, 13)

<수학능력시험출제 방향>

국립교육평가원은 9일 올해 첫 실시되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중략) 외국어(영어)영역의 경우는 대학에서 원서를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형기, 1993, 4, 10)

특목고 입시에 관한 기사도 3건 등장했다. 비록 낮은 빈도수이지만 원어민 교사, 교사 연수, 영어캠프와 같은 기사 내용들과 함께 모두 이 시기에 처음으로 언급된 기사들이었다.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기사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분야에서 연구된 학술 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서 5건만 검색되었던 토익과 토플 기사는 이 시기에 23건이나 등장했다. 직장 내 영어교육도 1건에서 13건으로, 취업영어도 4건에서 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영어 말하기·듣기에 대한 논문은 2편이 발견되었고, 아직도 토익·토플 등의 능숙도시험에 관한 연구물은 없었다. 기타로 분류된 학술논문에는 언어학 기반의 논문이 8편,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연구가 6편 등으로 검색되었다. 또한 비디오, 놀이 등을 통한 영어 학습에 관한 연구도 5편 검색되었다.

신문매체가 학술연구물보다 주도적으로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다양성을 모색했는데, 해당 게시물의 전체 빈도수가 이전 시기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은 한국 영어교육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도 이 시기에 규모가 커졌다. 영어교육 전체 신문기사 중에서 8.1%를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 관련 기사는 학생들 대상의 학원 및 과외 관련 기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 취업 등을 위해서도 영어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좀 더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는 영어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기사도 게재되었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는 1995년 4월 21일에 게재되었다.

<서강대 영어학원 만든다. - 대학으로는 처음 내달 3곳>

서강대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SLP(Sogang Language Program))를 자체 개발, 교육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오는 5월 1일 서울 서초 송파 목동 등 3개 지역에 영어학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1995, 4, 21)

이처럼 사교육 시장이 커지게 되니 영어과외를 교육부가 금지시킨다는 기사도 게재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사교육을 단속하면서 학부모들이 불평하고 반대한다는 신문기사도 동시에 게재되었다. 사교육의 필요와 의미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일견 읽을 수 있다. 다음은 1997년 3월 6일 기사이다.

<학교교육 정상화 측면 바람직한- 「초등학생 학원 영어과외 금지」 파문>  
 새 학기에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정규교과로 편성되면서 초등 3학년생을 상대로 한 영어과외가 금지된다는 교육부 방침이 보도되자 학부모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학기부터 영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과외를 금하고, 대상을 내년에는 3-4학년, 99년 4-5학년, 2000년 이후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등 3년생 학부모 박계숙씨(박계숙.38.여)는 『다섯살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왔는데 지금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라니 말이 되느냐』며 『4학년 이상 학생들은 계속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돼있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학원을 못 다니면 개인과외나 학습지 과외를 해야 하니 과외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된다.』고 걱정했다. (조길자, 1997, 03, 06)

#### 4. 김대중 정부 시기(1998년-2002년)

김대중 정부 시기의 영어교육 기사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김대중 정부 시기의 영어교육 기사

대분류	소분류	신문기사		학술지 논문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미취학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13	4.0%	3	1.1%
	영어동화	3	0.9%	-	-
	영어연극	3	0.9%	3	1.1%
	합계	19	5.8%	6	2.2%
학교 영어교육	초등학교 영어교육	8	2.4%	29	10.7%
	중학교 영어교육	9	2.7%	9	3.3%



	고등학교 영어교육	14	4.3%	11	4.1%
	초·중·고등학교 영어수업	8	2.4%	-	-
	대학교 영어교육	36	11.0%	9	3.3%
	합계	75	22.9%	58	21.4%
입시, 진학	특목고 입시	2	0.6%	-	-
	대학교 입시(일반)	20	6.1%	-	-
	대학교 입시 면접(영어)	2	0.6%	-	-
	수능	10	3.0%	2	0.7%
	유학	2	0.6%	1	0.7%
	합계	36	11.0%	3	1.1%
교사	영어교사 연수	1	0.3%	2	0.7%
	영어교사 임용	2	0.6%	-	-
	영어교사 (일반)	4	1.2%	-	-
	합계	7	2.1%	2	0.7%
사교육 (학원 및 과외)	학원 및 과외	17	5.2%	-	-
	합계	17	5.2%	-	-
영어마을/ 영어캠프	영어마을/영어캠프	8	2.4%	-	-
	합계	8	2.4%	-	-
일반영어 (취업준비, 직장, 토익/토플)	영어회화	1	0.3%	5	1.8%
	영어 말하기, 듣기	2	0.6%	6	2.2%
	영어쓰기	1	0.3%	2	0.7%
	영문법	1	0.3%	6	2.2%
	토익/토플 외	9	2.7%	-	-
	TEPS	46	14.0%	-	-
	직장 내 영어교육	18	5.5%	-	-
	취업영어	27	8.2%	-	-
	국가영어능력검정시험	3	0.9%	-	-
	합계	108	32.9%	19	7.0%

	영어교육강화	3	0.9%	-	-
	자기개발	1	0.3%	-	-
기타	영어공용화	6	1.8%	-	-
	기타	48	14.6%	183	67.5%
합계		58	17.7%	183	67.5%
합계		328	100.0%	271	100.0%

표 4에서 가장 돋보이는 항목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조선일보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어학검정시험 TEPS 기사이다. 토익과 토플을 포함한 기타 영어 능숙도 시험의 빈도가 총 9건임을 감안할 때 TEPS의 빈도수 46건은 매우 파격적인 지면 할애이다. 또한 TEPS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어 능숙도시험에 관한 학술연구에 진척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의 TEPS 기사보도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기사 검색 매체가 조선일보임을 감안하더라도 시험개발의 의미, 학교와 기업에서 TEPS 시험을 승진, 인사, 채용에 사용한다는 기사의 수는 지나치게 많았으며 일반영어 범주에 속하는 모든 기사도 108건이 게재되어 이전 정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돋보이는 경향을 보여준다. 조선일보는 TEPS를 통해 국내 영어교육, 특히 취업과 직장 내 영어교육의 필요를 자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등장한 TEPS 관련 기사의 일부이다.

<“TEPS 참여” 쇄도>

서울대 어학연구소가 개발한 「한국형」 영어능력검정시험인 TEPS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기관, 기업체, 대학 등 각계의 참여의사가 쇄도하고 있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대 문화관에서 개최예정인 「TEPS 연구발표회 및 설명회」에 정부기관, 기업체, 출판사, 학원 관계자들이 이미 참석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주대는 내년 1월 24일에 치르는 편입생 시험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토익시험을 TEPS로 대체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짜고 있다. (주)신동방에서도 내년 1월 예정인 직원 승진 시험 때 토익 대신 TEPS를 치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육군본부 역시 간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려던 영어 평가시험을 TEPS로 실시할 예정 이밖에 중소기업체 10여곳도 입사시험 등에서 TEPS 시험 도입의사를 알려졌다. (양근만, 1998, 12, 10)

<TEPS 영어검정 “새 들풍”>

31일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처음 치러진 TEPS 1차 시험에 천명 이상이 응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응시자의 나이는 20대가 57%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23%나 차지했다. 토익의 경우 82년 첫 시험이후 단일시험 응시자수가 5천명을 넘는데 11년이 걸렸다. (양근만, 1999, 2. 01)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기영어교육 기사도 13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에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김영삼 정부 시기와 비교해 볼 때 23건에서 8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은 29건으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 방안 연구(김영태, 박석구, 오진희, 2000), 주제중심 통합 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박석란, 이화자, 2000) 등과 같은 초등영어에 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연구 주제로 검색되었다. 보다 많은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초등영어 연구현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영어동화를 영어교육에 사용하는 것도 이 시기에 처음으로 신문기사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공교육 현장에서 영어로만 수업을 한다는 기사도 등장했는데 학교 영어교육의 전체 기사 중에서 2.4%만 차지할 정도로 빈도수는 낮았지만 원어수업이 신문매체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원어수업을 하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 확보와 현직 영어교사의 연수에 대한 추가 기사도 예상되었지만 교사연수에 관한 기사가 1건만 검색되었을 뿐 원어민 교사에 관한 기사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학술 논문도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2편만 등장했다.

대학교 입시에서도 면접을 영어로 시행한다는 기사가 2건 등장했고 대학 강의를 영어로 진행한다는 기사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영어말하기, 원어수업에 대한 관심이 지면을 차지하면서 유학에 관한 기사도 2건이나 검색되었다. 기타 학술 논문에 관한 내용은 영문학 기반의 연구 6편, 멀티미디어 개발 및 교육이 8편, 번역 연구 3편, 영어 오류분석에 대한 내용이 9편 검색되었고, 언어습득, 기타 외국어와 영어와의 비교 연구도 발견되었다. 다음은 영어로만 강의하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에 관한 2001년 조선일보 기사이다.

<영어강의 국제대 고대에 내년설립>

내년 3월에 고려대에 영어로만 강의하는 단과대학이 설립된다. 고려대 광상경 국제대학원장은 29일 “문과대학이나 정경대학처럼 단과대학 개념으로 국제대학을 설립,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방침”이라며 “국제대학은 선택, 전공과목이 모두 영어로만 진행되며 첫 해에 20명을 선발한 뒤 선발인원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선, 2001, 7, 30)

##### 5. 노무현 정부 시기(2003년-2007년)

표 5에 요약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영어교육 신문기사의 주제어는 이전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체 영어교육 관련 기사의 빈도수는 56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유치원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영어 몰입교육에 관한 기사도 3건 등장했다. 학술지 논문에서도 영어 유치원 교육에 대한 연구가 4편, 몰입교육에 대한 연구는 1편 있었다.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신문매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제어를 부각시키고 있고 학술연구의 주제는 학교 교육에 관한 소재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다.

표 5  
노무현 정부 시기의 영어교육 기사

대분류	소분류	신문기사		학술지 검색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미취학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7	1.2%	9	1.7%
	영어동화	3	0.5%	-	-
	영어연극	6	1.1%	2	0.4%
	영어유치원	3	0.5%	4	0.7%
	합계	19	3.3%	15	2.8%
학교 영어교육	초등학교 영어교육	22	3.9%	39	7.3%
	중학교 영어교육	35	6.2%	17	3.2%
	고등학교 영어교육	36	6.3%	21	3.9%
	초·중·고등학교 영어수업	9	1.6%	-	-
	대학교 영어교육	15	2.6%	16	3.0%
	영어몰입교육	3	0.5%	1	0.2%
	합계	120	21.1%	94	17.6%
입시, 진학	특목고 입시	46	8.1%	-	-
	대학교 입시(일반)	71	12.5%	-	-
	대학교 입시 면접(영어)	7	1.2%	-	-
	편입학	1	0.2%	-	-
	유학	10	1.8%	2	0.4%
	합계	135	23.8%	2	0.4%

교사	원어민 교사	9	1.6%	-	-
	영어교사 연수	2	0.4%	5	0.9%
	영어교사 임용	2	0.4%	-	-
	영어교사 (일반)	5	0.9%	-	-
합계		18	3.2%	5	0.9%
사교육 (학원 및 과외)	학원 및 과외	12	2.1%	-	-
	합계	12	2.1%	-	-
영어마을/ 영어캠프	영어마을/영어캠프	112	19.7%	2	0.4%
	해외캠프	1	0.2%	-	-
	합계	113	19.9%	2	0.4%
일반영어 (취업준비, 직장, 토익/토플)	영어회화	10	1.8%	10	1.9%
	영어 말하기, 듣기	9	1.6%	24	4.5%
	토익/토플 외	19	3.3%	2	0.4%
	TEPS	11	1.9%	-	-
	직장 내 영어교육	9	1.6%	-	-
	취업영어	25	4.4%	-	-
	국가영어능력검정시험	2	0.4%	-	-
	합계	85	15.0%	36	6.7%
기타	영어교육강화	9	1.6%	-	-
	자기개발	1	0.2%	-	-
	기타	56	9.9%	380	71.2%
	합계	66	11.6%	380	71.2%
합계		568	100.0%	534	100.0%

이 시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초·중등학교의 영어교육, 특목고, 대학 입시, 그리고 영어마을/캠프에 관한 기사의 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다. 학교 영어교육 범주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기사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8건에서 22건, 중학교 영어교육은 9건에서 35건, 고등학교 영어교육은 14건에서 36건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기사 내용은 영어 수업에 관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대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기사는 이 전 시기의 36건에

비해 절반 수준인 15건으로 감소하였다. 학술 연구자들도 영어마을/캠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 실천 사례(김종훈, 2004), 영어마을 조성의 효과 및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한 연구(조금주, 2006)가 검색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에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정책 중 하나가 영어수업 및 평가의 내실화였다. 그 내용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기별 영어수업을 공개해야 하고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영어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객관화된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유체제를 정립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외에도 1997년부터 강조된 영어를 강조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으로 학교 영어수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했는데(박거용, 2009) 이러한 정부의 의도, 사회적 실천이 신문기사로 꾸준히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술지 논문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듯이 총체적 영어교육의 방안, 학생들의 담화능력 증진 방안, 한국형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검색되었는데(예: 임병빈, 2007),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학습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연구 결과물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시기에 비해 대학 입시에 관한 기사가 20건에서 7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대입 영어면접이 7건이나 기사화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시와 상관성이 있는 TEPS, 토익, 토플 등 능숙도시험에 관한 기사도 30건으로 증가하였다. 아래 조선일보 2004년 3월 31일 기사내용처럼 TEPS 85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면 대학입시의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시기였다.

#### <2005 대입 전형안 발표>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의 경우 논술·문학, 외국어, 수학·과학·정보, 봉사·사회활동으로 분야를 확정했다. 논술·문학은 전국 규모의 주요문학상 수상자나 신춘문에 입상자, 외국어는 영어 텡스(TEPS) 850점 이상 등 외국어 공인시험성적 제출자 수학·과학·정보는 국제 및 국내 올림픽아드 수상자 등이 대상이 된다. (최현목, 2004, 3, 31)

그리고 대학 입시보다도 고등학교 입시, 그 중에서도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를 포함한 특목고 입시에 관한 기사가 46건이나 게재되면서 당시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다음 기사는 특목고 입시에 관한 조선일보 2005년 1월 18일자 기사이다.

<외고 진학의 모든 것>

외국어고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내신 비중을 높이는 ‘2008 대입안’ 발표로 외고에 입학할 경우 내신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여전하다. 하지만 수준이 비슷한 우수한 학생들끼리의 학습, 공부하는 면학분위기가 장점이다. 거기다 외국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외고 학생들이 갈수록 늘면서 외고의 인기도 갈수록 올라갈 전망이다. (임성호, 2005, 1, 18)

이 시기에는 영어마을, 영어캠프에 관한 기사를 112건이나 조선일보 지면에 실었다. 전체 영어교육 관련 기사 중에서 19.7%를 차지하는 빈도수인데 크고 작은 영어마을, 혹은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다 차별적인 영어환경에 노출시킨다는 국가와 각종 기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주제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서 신문매체가 의도하거나 반영한 사회적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구축하는 영어체험마을에 관한 조선일보 2003년 11월 5일 기사이다.

<‘영어 체험마을’ 만든다. 주민은 원어민들 봉사자로. 학습기관, 공공시설, 상가도>

모든 대화를 영어로만 하는 ‘영어체험마을’이 이르면 2005년 서울에 들어선다. 이명박 서울 시장은 4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일반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세우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부지와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형준, 2003, 11, 05)

흥미롭게도 기타 논문에 영문학 및 영어학 기반의 영어교육 연구가 상당수 검색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어교육 학술분야에 영문학 및 영어학 기반의 연구자들이 더욱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영상자료를 활용한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도 35건, 수준별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도 18편 이나 검색되었다.

## 6. 이명박 정부 시기(2008년-2011년 현재)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표 6에 요약된 것과 같이 이미 영어교육에 관한 전체 기사가 476건이나 게재되었다. 가장 주목할 항목은 공교육 현장의 영어수업과 영어 몰입교육이다. 영어수업, 영어캠프, 몰입교육 등은 하나의 항목 안에 분류할 수도 있지만 몰입교육이란 특정 주제어로 20건이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항목과 구분하였다. 이 시기의 영어 몰입교육에 관한 학술연구는 5편이 검색되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 연구

논문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영어학습 나이의 하향화와 더불어 몰입교육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 관심이 축적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일상성을 가진 영어사용, 영어학습의 몰입환경에 큰 관심을 보였다.

표 6  
이명박 정부 시기의 영어교육 기사

대분류	소분류	신문기사		학술지 검색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미취학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4	0.8%	2	0.6%
	영어동화	2	0.4%	-	-
	영어연극	2	0.4%	1	0.3%
	합계	8	1.7%	3	0.9%
학교 영어교육	초등학교 영어교육	29	6.1%	56	16.4%
	중학교 영어교육	22	4.6%	11	3.2%
	고등학교 영어교육	16	3.4%	10	2.9%
	초·중·고등학교 영어수업	28	5.9%	-	-
	대학교 영어교육	18	3.8%	24	7.0%
	영어몰입교육	20	4.2%	5	1.5%
	합계	133	27.9%	106	31.0%
입시, 진학	특목고 입시	27	5.7%	-	-
	대학교 입시(일반)	31	6.5%	-	-
	대학교 입시 면접(영어)	5	1.1%	-	-
	수능	16	3.4%	2	0.6%
	편입학	2	0.4%	-	-
합계	81	17.0%	2	0.6%	
교사	원어민 교사	13	2.7%	-	-
	영어교사연수	14	2.9%	7	2.0%
	영어교사관련	2	0.4%	-	-
	영어교사평가	2	0.4%	-	-



	합계	31	6.5%	7	2.0%
사교육 (학원 및 과외)	학원 및 과외	9	1.9%	-	-
	합계	9	1.9%	-	-
영어캠프	영어마을/영어캠프	38	8.0%	-	-
	해외캠프	5	1.1%	-	-
	합계	43	9.0%	-	-
일반영어 (취업준비, 직장, 토익/토플)	영어회화	7	1.5%	2	0.6%
	영어 말하기. 듣기	8	1.7%	15	4.4%
	토익/토플 외	36	7.6%	2	0.6%
	TEPS	2	0.4%	-	-
	직장 내 영어교육	7	1.5%	-	-
	취업영어	16	3.4%	-	-
	국가영어능력검정시험	12	2.5%	-	-
	합계	88	18.5%	19	5.6%
기타	영어교육강화	25	5.3%	2	0.6%
	기타	58	12.2%	203	59.4%
	합계	83	17.4%	205	59.9%
	합계	476	100.0%	342	100.0%

다음은 영어몰입 연구학교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이다.

<초등학교 수학·과학, 영어로 배운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수학·과학 등을 배우는 공립초등학교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광진구의 광남초등학교를 영어로 가르치고 배우는 ‘영어 몰입 연구학교’로 지정, 영어교육을 생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 몰입교육이란 별도의 영어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수학·과학 등 다른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립 초등학교인 서울의 영훈초등학교나 지방의 일부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남인, 2008, 1, 12)

영어 몰입교육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도 7편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영어 몰입교육에

원어민 교사만으로는 충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직 교사를 재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한 듯 하지만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같이 학원 및 과외에 관한 사교육 기사가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감소하지 않았다. 일반영어 범주에서는 토익과 토플을 포함한 각종 영어능숙도시험의 기사가 36건이나 등장했다. 이 시기부터는 토익과 토플을 제외하고도 TOEIC-Speaking, OPIc, IELTS, G-TELP와 같은 영어말하기 시험의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학술논문도 말하기능력 향상 방안(문혜리, 2008), 영화 대사에 관한 화용적 기능분석과 말하기 학습(임미진, 2009), 영화를 이용한 스키마 활성화 연구(이지현, 2010) 등 말하기·듣기에 주목한 연구 논문도 이전 시기보다도 많이 증가했다.

원어민 교사와 영어교사의 연수에 관한 기사 빈도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27건이 검색되었는데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간에 많은 수의 영어교사를 투입해서 영어교육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보도가 자주 기사로 등장했다. 영어교사들 중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전용교사를 2만명 이상 채용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주요 의제이기도 했다. 정부의 의도는 조선일보에서 빈번히 전달되었는데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행하고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독자 여론도 지면으로 옮겼다. 다음 기사가 그 예시이다

<10년 배워 입도 병긱 못하는 영어 교육 확 고치라>

능력 있는 영어 교사를 늘리는 게 관건이다.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은 한 반 20명이 넘으면 불가능해진다. 전국 초·중·고교가 1만 1000개인데 영어 교사는 2만 9000명 밖에 안 된다. 학원 강사, 외국생활 경험자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영어 교사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 (10년 배워 입도 병긱 못하는 영어 교육 확 고치라, 2008, 1, 28)

기타 연구 논문으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영어학 및 영문학 기반의 연구가 많았으며, 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7편,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6편, 멀티미디어에 관한 연구 14편 등으로 좀 더 다양한 연구주제가 검색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98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영어교육 관련 사건과 쟁점을 검토하고 분류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 홈페이지의 아카이브에서 검색된

조선일보 기사와 학술지 논문을 이용했다. 지난 31년 동안 신문기사와 학술지 논문을 통해 전달된 영어교육의 역사적 흐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기는 1993년이다.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의 명분으로 다양한 영어교육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시점이다.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된 전체 344건의 영어교육 기사는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빈도수였다. 또한 많은 빈도수로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 토익과 토플, 직장에서의 영어능력 등이 신문 매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학술지 논문 또한 그 빈도수에서 전두환 정부의 24편, 노태우 정부 22편과 비교했을 때 김영삼 정부 시기는 134편이 검색되어 빈도수 측면에서부터 큰 차이점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역시 국내 영어교육사에서 주목할 여지가 많다. 영어교육 관련 기사를 568건이나 조선일보 지면에 실었고 영어교육에 관한 다양한 단면을 사회적으로 주목시켰다. 영어유치원, 몰입교육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소개했고, 공교육 현장에서의 영어수업, 특목고 입시, 영어마을과 캠프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학술지 논문에는 신문 매체의 내용을 반영하는 수준의 빈도수는 아니었지만, 총 534편이 검색되었고 연구주제도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초등교육이나 영어 말하기·듣기의 연구논문도 증가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적 흐름을 연구소재에 반영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시기도 영어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준의 사건과 쟁점들이 꾸준히 등장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서는 학교 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장 내 영어교육이나 영어회화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영어듣기능력 평가가 도입된 기사, 토익에 관한 기사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입시와 진학에 관한 기사가 많아졌다. 특히 대학별 본고사와 수능의 도입으로 대학 입시에 관한 기사 내용이 많이 검색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의 기사가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많아졌고 대학별 본고사와 수능에 관한 기사가 보다 빈번히 등장했다. 또한 원어민 교사가 처음으로 기사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시기는 조선일보가 서울대학교와 협력해서 시행한 TEPS 관련 정보를 집중 보도했으며 학교의 영어수업을 쟁점화시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공교육 현장의 영어수업과 몰입교육에 관한 기사가 가장 빈번히 기사로 등장했다. 영어마을에 대한 기사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지 않은 빈도수를 보였고, 토익과 토플 외에도 각종 영어능력도시험에 관한 기사가 예전보다 많이 검색되었다.

대체로 학술지 논문은 신문매체에서 다루는 기사 빈도수와 비례하는 수준으로 연구물이 축적되지 않았으나, 시기가 지날수록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을 연구주제로 다루었다. 영어교육 연구자들은 비교적 학교

안에서의 현장에서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문학, 영어학 등 인접 학문영역에 기반한 영어교육 연구물도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신문매체의 기사 탐색과 학술지 연구물과의 비교 연구가 추후에 국내 영어교육사의 역사적 쟁점과 사건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추후 연구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총론적 토론이 아니라 각론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 분야의 영어교육사가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기사를 획일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보도기사, 사실, 컬럼, 독자투고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 장르 혹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정 연구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보다 복합적인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 논의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다면 국내 영어교육의 동향과 대안에 대해 보다 새로운 시각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신문매체의 기사와 한국학술정보 아카이브에 저장된 학술지 논문을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신문의 편집 방향, 담론적 실천 의도가 국내 영어교육사를 왜곡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임기로 구분한 학술지 논문의 경향과 빈도수 역시 영어교육사의 경향을 추정하기엔 부적절한 실증자료일 수 있다. 특히, 공적 매체들은 사회적 경향을 사실적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교육담론을 생성시키기도 하기 때문에(김민, 2000),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지표, 사회역사적인 실제 현상, 실제 기사의 내용과 빈도수는 좀 더 다면적인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매체에서 도출된 자료는 여전히 유의미성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어교육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학술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경향과 담론 생성의 의도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신문뿐 아니라 광고,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학술자료와 연계해볼 필요가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중매체가 유포하는 영어교육담론(예: 10년 배워 입도 병긱 못하는 영어 교육)이 어떤 담론적, 사회적 실천을 의도하고 있는지 보다 비판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판적 담론분석(Fairclough, 1995a, 1995b)을 활용하여 신문기사가 하나의 사실적 텍스트가 아니라 특정 교육담론을 의도적으로 형성하고 ‘교육’이란 이름으로 부적절한 실천을 유도하지 않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고교 교과목 6-7개 축소. (1990, 12, 16). *조선일보*, p. 23.

- 권오량, 부경순, 신동일, 이진경, 현석분, 정양순. (2006). *초등 영어 교육 10년의 성과 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남인. (2008, 1, 12). 초등학교 수학·과학, 영어로 배운다. *조선일보*, p.12.
- 김민. (2000). ‘학교붕괴’ 신화인가 현실인가? *교육인류학연구*, 3(2), 1-30.
- 김민철. (1995, 4, 21). 서강대 영어학원 만든다. *조선일보*, p.38.
- 김영태, 박석구, 오진희. (2000). 외래어를 이용한 초등영어 교수, 학습방안.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5(1), 101-124.
- 김오성. (1992). 한국 영어교육 발전사 고찰(1876-1945). *역사와 사회*, 1(9), 69-98.
- 김임득. (1996). 영어교과 현행 교육과정 분석 및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방안에 대한 토론. *교육과정연구*, 14(2), 101-111.
- 김중훈. (2004). 제주도 중·고등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어캠프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0(1), 5-26.
- 김진완. (2006). 한국 영어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영어교육*, 61, 247-260.
- 김형기. (1993, 4, 10). 수학능력시험출제 방향. *조선일보*, p.26.
- 문용. (1982). *한국 영어 교육 100년*. 서울: 시사영어사
- 문혜리. (2008).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21, 39-57.
- 민찬규. (1996). 제 6차 영어과 교육 과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제안. *영어영문학연구*, 38(1), 399-423.
- 박거용. (2009). 영어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전교조의 대응 그리고 그 보완 방향. *진보평론*, 39, 84-98.
- 박거용, 양기숙. (2006). 초·중등영어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연구. *교육연구*, 2006, 1-15.
- 박민선. (2001, 7, 30). 영어강의 국제대 고대에 내년설립. *조선일보*, p.27.
- 박석란, 이화자. (2000). 초등 영어교육에서 주제중심 통합 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5(2), 61-77.
- 박종성. (2007).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 한국에서 영어의 수용과 전개 1883-2002*. 서울: 당대.
- 배두분. (1998).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 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1), 223-240.
- 손성미. (1993, 2, 13). 내신등급 큰 차 정규수업 충실, 단순 암기보다 기본원리 이해-응용력 중요. *조선일보*, p.13.
- 신형준. (2003, 11, 5). ‘영어 체험마을’ 만든다. 주민은 원어민들 봉사자로. 학습기관, 공공시설, 상가도. *조선일보*, p.9.
- 10년 배워 입도 병긋 못하는 영어 교육 확 고치라. (2008, 1, 28). *조선일보*, p.A35.
- 양근만. (1998, 12, 10). “TEPS 참여” 쇠도. *조선일보*, p.26.
- 양근만. (1999, 2, 1). TEPS 영어검정 “새 돌풍”. *조선일보*, p.29.

- 英語듣기 성적반영, 전국 中-高대상 年 네 차례 放送시험 실시. (1983, 3, 20).  
*조선일보*, p.11.
- 오관영. (2000). 현 영어교육의 문제와 대안. *현대영어교육*, 1, 99-110.
- 이관영. (1982). 국민학교 영어교육에 관하여. *현대영어영문학*, 21, 291-304.
- 이병민. (2008). 이명박 정부 영어 공교육 정책 분석. *교육비평*, 24, 114-137.
- 이복희, 여도수. (2001). 한국의 영어교육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8, 377-392.
- 이재근, 김용호. (2009). 시수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개정안과 초등영어교육의 방향. *초등교과교육연구*, 10, 91-114.
- 이종혁. (1983). 소통활동을 위한 언어 교육. *현대영어영문학*, 24, 185-200.
- 이지현. (2010).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듣기능력 신장 방안: 영화를 이용하여. *영상영어교육*, 11(2), 163-182.
- 임미진. (2009). 영화대사에 대한 화용적 기능 분석의 필요성: 말하기 학습을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 10(1), 193-213.
- 임병빈. (2007). 한국 영어교육의 성찰과 발전적 대안 모색. *현대영어교육*, 8(1), 171-190.
- 임성호. (2005, 1, 18). 외교 진학의 모든 것. *조선일보*, P.5.
- 전홍주. (2011).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1), 351-376.
- 정승영. (1994). 중등학교 영어교수에서의 효과적 의사소통 지도방안. *교육이론과 실천*, 4, 179-200.
- 조길자. (1997, 3, 06). 학교교육 정상화 측면 바람직한. *조선일보*, p.47.
- 조금주. (2006). 영어마을의 조성 효과 및 향후 발전 과제. *중등교육연구*, 54(2), 359-382.
- 조수선. (2010). 중앙일간신문의 교육섹션 비교분석. *동서언론*, 13, 89-115.
- 최용재. (1996). 교과서 집필과 중등학교 영어교육.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1), 9-16.
- 최현목. (2004, 3, 31). 2005 대입 전형안 발표. *조선일보*, p.10.
- 한상호. (1999). 21세기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의 방향. *현대문법연구*, 17, 191-206.
- 홍성면. (1982). 국민학교 영어교육에 관하여. *현대영어영문학*, 3, 61-74.
- Fairclough, N. (1995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1995b). *Media analysis*. London: Edward Arnold.

신동일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02)820-5098 /H.P.: 010-6733-9961  
Email: shin@cau.ac.kr

심우진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02)820-5095 /H.P.: 010-4739-2480  
Email: shim@wm.cau.ac.kr

Received 15 July 2011

Revised 30 August 2011

Accepted 14 September 2011